

도서관 모바일 웹사이트의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formation Architecture for Mobile Library Websites

남재우,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namssi@gmail.com

김성희,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seonghee@cau.ac.kr

Jae-Woo, Nam,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Seong-Hee, Kim,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 Chungang University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모바일 웹사이트를 조사, 분석하여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모바일 웹사이트 설계지침을 제시하였다.

1. 서론

2010년 현재,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 2009년 말 기준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약 75만 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기하급수적인 증가현상이다.(서울경제신문 2010) 이는 국내의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를 약 4,900만이라 했을 때 약6%에 해당하는 비율이며 이와 같은 가입자의 폭발적인 증가는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의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기기에 대한 유용성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는 스마트폰과 연동된 서비스와 전용 웹사이트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외의 많은 도서관에서도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 중이거나 시행하고 있다. 국내 도서관들은 주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열람석 현황을 확인하고 소장자료의 검색기능을 지원하는 등 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

다. 국외의 경우는 많은 도서관에서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모바일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도서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을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는 기존의 PC용 웹사이트의 축소판으로서, 기존의 콘텐츠를 재 활용 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에 비해 실시간 업데이트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도서관의 모바일 웹사이트를 조사, 분석하여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모바일 웹사이트 설계지침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Morville and Rosenfeld(2006)등이 제시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의 4가지 영역인 ① 정보의 구조화, ② 내비게이션 체계, ③ 레이블링 체계, ④ 검색체계를 기초로 하여 모바일 웹사이트를 분석하였다. 다만, 검색체계는 도서관의 정보검색시스템과 서로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웹사이트의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 도서관의 경우 모바일 웹사이트 보다는 주로 모바일 디바이스에 직접 설치해서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도서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모바일 웹사이트를 상대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도서관만 그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관중에서 오는 차이를 고려해서 공공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은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였고, 종합대학의 도서관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8개의 도서관이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이며 주로 애플사의 아이폰이 연구에 사용되었다.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한 기간은 2010년 7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그 이후의 사이트 변동사항은 연구에 반영되지 않았다.

2.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와 모바일 웹

2.1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의 개념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는 웹사이트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사이트의 골격을 구성하는 기초 단계로, 각 요소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구조는 콘텐츠를 구성하는 체계로 웹사이트에 포함될 콘텐츠를 일정한 형식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일련의 정보 조직화 과정이다. 전체적으로는 사이트의 콘텐츠가 나타내는 메인 컨셉을 구성해주고, 부분적으로는 동질의 콘텐츠를 하나의 카테고리 묶어주거나 서로 다른 콘텐츠를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체계화 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정보구조를 통해서 이용자는 웹사이트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의 정보구조는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축되어야 한다.(이승민, 김혜경 2004). 내비게이션은 구조화된 웹사이트 내에서의 효율적인 안내와 동선을 설계하는 과정이다. 효과적인 내비게이션 체계는 이용자들이 손쉽게 원하는 콘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관성 있는 메뉴의 배치를 통해 체계적인 브라우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이용자가 웹사이트 내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위치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며, 현재 웹사이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명확한 시각적 메시지를 제공한다. 레이블링은 내비게이션 체계에서 나타내는 메뉴의 이름이나 서브메뉴, 페이지의 타이틀 등을 명명하는 것을 말한다. 웹사이트의 콘텐츠 구조와 카테고리의 레이블로 사용되는 용어는 이용자들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웹사이트는 포함하고 있는 카테고리 및 그 안에 수록된 콘텐츠를 명확하게 표현하여 이용자들이 수록된 콘텐츠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 신속하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장로사, 김성희 2006). 도서관의 웹사이트에서는 이용자가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전문용어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고(Jasek 2007), 이용자의 수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2.2 모바일 웹페이지의 특징

모바일 웹페이지는 PC에서 제공되던 웹페이지를 모바일 전용으로 경량화하고 특화시켜 전용 웹사이트를 만든 것이다. 모바일 웹페이지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특성상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일반 웹페이지와 콘텐츠의 표현방법과 구성요소가 틀려진다.

모바일 웹 환경과 일반 웹 환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웹페이지가 구현되는 화면의 크기이다. 휴대성이 강조된 모바일 디바이스는 정보

를 표현하는 화면의 크기가 일반 PC에 비해 매우 작다.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풀브라우징(full-browsing)방식으로 웹사이트를 접속하면 작은 화면크기로 인해 화면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상하좌우 모든 방향의 스크롤링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성이 떨어진다. 즉, 가독성을 올리기 위해 사용성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PC용 웹페이지와는 다른 모바일 전용 웹페이지가 필요하게 되며, 모바일 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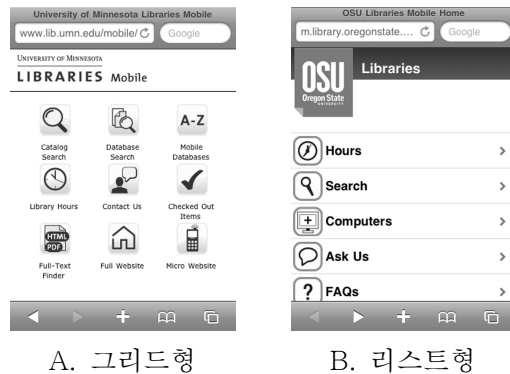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호환성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는 동일한 운영체제와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아이폰의 경우 웹에서 플래시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반해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은 일부 지원하고 있거나 추후 지원될 예정이다. 따라서 플래시를 이용한 콘텐츠의 표현이나 내비게이션, 레이블링을 주의해야 하며 텍스트나 가벼운 이미지로 사이트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호환성 문제는 모바일 웹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반 PC용 웹 환경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대두된 문제로, 브라우저의 종류에 따라 콘텐츠가 표현이 되거나 되지 않는 문제와 동일한 것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웹 표준의 준수여부인데, 모든 웹사이트가 표준을 준수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따라서 태동하고 있는 모바일 웹에서는 PC용 웹에서 고민했던 문제를 답습하지 말고, 처음부터 표준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도서관의 모바일 웹사이트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분석

3.1 정보의 구조와 구성

일반적으로 PC용 웹사이트의 정보구조는

콘텐츠의 상하관계가 뚜렷한 계층구조형태를 많이 따르고 있다. 계층구조는 복잡한 정보구조를 구성하는데 좋은 방법으로 사이트의 폭(width)과 깊이(depth)를 적절히 조절해서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모바일 웹사이트는 화면크기의 제약으로 인해 웹 사이트에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웹사이트에서는 정보의 구조가 PC용 웹사이트와 다르게 나타나거나 축소된 형태를 띠게 된다. 이에 대해 도서관 모바일 웹사이트의 메인화면에 나타난 콘텐츠 구조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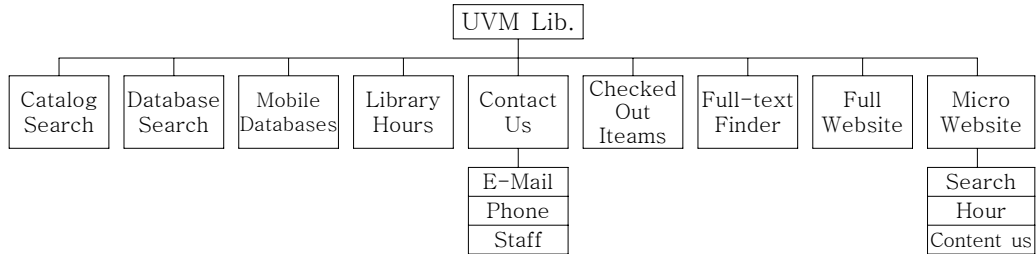


A. 그리드형 B. 리스트형

<그림 1> 도서관 모바일 웹사이트의 메인화면 구조

그 결과 메인화면은 <그림 1>과 같이 그리드형태와 리스트형태의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드형태는 스마트폰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와 동일한 구조로서, 배치된 메뉴들은 대부분 독립된 한 개의 콘텐츠들이다. 리스트 형태의 구조도 그리드 형태와 레이아웃만 다를 뿐 독립된 한 개의 콘텐츠들이 세로로 나열된 구조였다. 이처럼 콘텐츠들이 각각 독립적인 관계로 같은 수준(level)에서 나열된 정보구조는 병렬구조라 할 수 있으며, <그림 2>와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미네소타대학의 경우 메인화면에서 제공되



<그림 2> 미네소타대학 도서관의 정보구조도

는 9개의 메뉴는 각각 개별적인 콘텐츠로서, 상·하위 수준으로 구분되는 위계질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 연결(link)되어 있는 구조도 아니었다. 물론 일부 하위메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폭이 넓고 깊이가 얇은 계층구조로 볼 수도 있으나,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정보구조의 분화(分化)수준이 미흡하다. 또한 1단계에서 제공되는 각 메뉴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병렬구조라고 보는 것이 더 적당하다.

이와 같은 수평적인 병렬구조에서는 체계적인 계층구조에서처럼 콘텐츠를 범주화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병렬구조에서는 정보의 확장이 수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콘텐츠는 같은 수준에서 나열되게 된다. 그러나 한정된 모바일 환경에서 수평의 확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한 기준을 세워놓고 제공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제약조건이 많은 모바일 환경에서는 일반적인 웹에서보다 수평구조의 넓이가 더욱 좁아지기 때문에 정보를 선별해서 구성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모바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자관의 특성을 고려한 핵심적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각 도서관들은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15개까지 메인화면을 통해 도서관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모바일 환경에서도 도서관의 고유기능을 수행하고자 각종 정보와 참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모든 도서관에서는 자료의 검색과 도서관에 대한 안내메뉴

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과반수 이상의 도서관이 폴브라우징을 위한 메뉴와 문의, 뉴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3.2 사이트 접속체계와 내비게이션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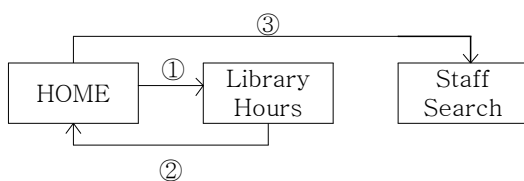
모바일 도서관의 내비게이션을 분석하기에 앞서 도메인의 구성 및 접속체계 대해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의 접속에 관한 사항은 내비게이션 요소에 포함되지 않지만, 모바일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용자 내비게이션의 첫 단계를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부터 설정하였다. 모바일 사이트는 일반 PC의 웹사이트에 비해 접근성이 취약하므로 웹사이트의 설계 시에는 이용자의 접속을 수월하게 하기위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모바일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들은 대부분 기존의 도메인에 서브도메인이나 서브도메인을 이용해서 웹 주소를 구성하고 있으며, 모바일이라는 의미를 함축한 알파벳 'm'이나 'mobi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도메인의 구성은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많은 모바일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모바일 디바이스에 웹 주소를 최대한 간편하게 입력하려는 목적과 기존의 도메인을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모바일 사이트에 쉬운 접속을 위한 또 다른 기능으로 리디렉션(redirection)이 있다. 리디렉션은 모바일 브라우저로 PC용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자동으로 모바일 사이트로 연결

해주는 기능이다. 모바일 사이트는 별도의 접속 포인트(access point)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이용이 쉽지 않다. 또한 도서관 모바일 웹사이트의 주소를 알고 있지 않는 이용자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웹을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를 입력해서 PC용 웹사이트에 접속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때 PC용 웹사이트에서 리디렉션 기능을 제공한다면 이용자에게 훌륭한 안내장치가 될 수 있다. 8개의 조사대상 도서관에서는 리디렉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이 2곳뿐이었다.

다음으로 조사대상 도서관의 내비게이션 체계에 대해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계층구조로 설계된 PC용 웹사이트에서는 정보구조의 가장 상위에 속하는 메인메뉴가 글로벌 내비게이션이 되어 고정된 이정표 역할을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각 메인메뉴에 속해있는 서브메뉴들은 해당 카테고리에서만 적용되는 로컬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의 흐름은 메인-서브메뉴가 안내하는 방향에 따라 수평, 수직방향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병렬 정보구조인 도서관의 모바일 웹사이트에서는 일반 PC용 웹사이트와는 다른 내비게이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 모바일 웹사이트의 메인화면에 위치한 각 메뉴들은 그 자체가 각각 서로 구분된 독립된 한 개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글로벌내비게이션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정보의 흐름은 수평방향으로만 일어나게 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은 이용자내비게이션이 발생하게 되며,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용자 내비게이션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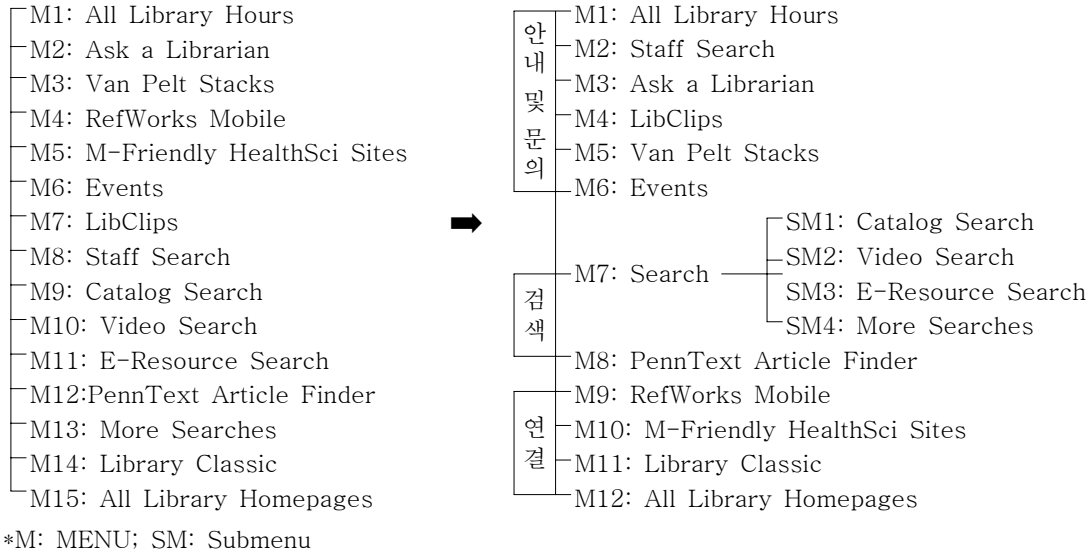
<그림 3> 병렬정보구조에서의 내비게이션

예를 들면, A라는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도서관의 개관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의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 ①이용자는 모바일 웹사이트의 메인화면에서 [Library Hours]라는 메뉴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도서관 개관시간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그러던 중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에 대한 정보가 궁금해져서 관련된 추가정보를 얻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페이지에서는 관련된 정보로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 ②이용자는 해당 메뉴를 찾기 위해 다시 메인화면으로 돌아오게 된다. ③메인화면에서 [Staff Search]메뉴를 발견하고 이를 클릭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는다.

<그림 3>과 같이 글로벌 내비게이션이 없는 구조는 메인화면(home)이 모든 내비게이션의 중심지가 된다. 따라서 각 세부 웹페이지에는 메인화면으로 돌아가는 홈 버튼을 제공해야 하며, 현재의 위치를 알려주는 페이지 제목이 존재해야 이용자들이 길을 잃지 않는다. 조사대상 도서관의 모바일 웹페이지에서는 이 같은 기능을 각 페이지에 위치한 내비게이션바(Navigation Bar)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내비게이션바는 사실상 모바일 웹사이트의 세부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유일한 내비게이션 체계이므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3.3 레이블링 체계

레이블링은 메뉴의 이름체계를 개발하는 작업이다. 메뉴는 곧 내비게이션을 의미하므로, 메뉴의 명명(命名)이 체계적이고 적절할수록 이용자의 내비게이션은 향상된다. 따라서 메뉴의 이름을 명명할 때는 전체적인 정보구조 맥락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각 콘텐츠를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명칭이 부여되어야 한다. 분석결과 조사대상 도서관들의 레이블은 대체로 콘텐츠가 제공하는 정보를 직관적으로



<그림 4>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도서관의 정보구조 재구성안

잘 표현하고 있었다. 또한 도서관의 웹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을 피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쉬운 내비게이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검색메뉴는 주로 ‘Search’와 ‘Catalog’를 사용해서 명명되었고, 개관시간은 ‘Library Hour’내지 ‘Hour’로 명칭이 부여되었다. PC용 웹사이트를 연결하는 메뉴는 대부분 ‘Full Website’로 표현되었고, 도서관에 문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메뉴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Ask’와 ‘Contact’를 사용해 명명되었다.

4. 도서관의 모바일 웹사이트의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설계 방안

4.1 정보구조와 내비게이션

조사대상 도서관들의 모바일 웹사이트는 모두 병렬정보구조로 설계되었다. 병렬정보구조는 화면표현의 제한이 있는 모바일 웹사이트에 적합한 구조로서 간결하고 쉬운 내비게이

션을 제공한다. 그러나 정보의 확장이 수평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화면공간의 제약이 있는 모바일 환경에서 도서관의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앞서 조사했듯이 도서관의 모바일 웹사이트는 메인화면에서 4~15개의 메뉴를 제공하고 있는데 메뉴가 많아지면 화면에 스크롤링이 발생하게 되며, 한 화면에서 모든 메뉴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메뉴의 수가 많은 도서관에서는 같은 부류의 메뉴를 한 개의 메뉴로 범주화해서 모바일 사이트의 메인화면을 좀 더 간결하게 표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의 A는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도서관 모바일 웹사이트의 정보구조로서 좌측은 현재의 정보구조를 도식화한 그림이며, 우측은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한 그림이다. 여기에서 시사하고자 하는 바는 같은 콘텐츠를 범주화 시켜 정보를 재구성하고, 배치순서를 유기적으로 조직해서 내비게이션을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좌측의 구조도를 살펴보면, 현재의 메뉴 중 [Catalog Search], [Video Search], [E-Resource Search]는 각각 독립

적인 메뉴로 제공되고 있는데, 우측의 구조도에서와 같이 한 개의 카테고리 재구성이 가능하다. 이들 세 메뉴는 모두 자료를 검색하기 위한 메뉴로서 자료의 종류는 틀리지만 ‘검색’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제공되는 검색인터페이스 역시 동일하다. 이처럼 범주화 했을 때는 메인메뉴가 15개에서 12개로 줄어들게 되어 메인화면을 좀 더 간결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콘텐츠의 배치 순서를 살펴보면, 좌측의 구조도는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정렬되어 있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만일 서로 관련이 있거나 비슷한 목적의 메뉴가 이웃해서 함께 배치된다면, 내비게이션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8번째 메뉴인 [Staff Search]는 그 다음의 메뉴인 [Catalog Search], [Video Search]와 함께 ‘Search’라는 기능에 의해 정렬되어 있다. 그러나 [Staff Search]는 정보자료를 검색하는 메뉴가 아닌 직원을 검색하는 메뉴이므로 도서관을 안내하는 메뉴와 함께 위치한다면, 이용자가 웹사이트를 브라우징 할 때 원하는 정보를 좀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측의 구조도처럼 [All Library Hours]와 함께 배치되면, 것이 이용자에게 발견될 가능성이 더 크며, 이는 좀 더 효과적인 내비게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4.2 레이블링의 체계성

조사대상 도서관의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레이블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메인메뉴의 레이블과 이를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세부 웹 페이지 레이블(제목)을 비교해 보았다. 메인레이블은 한정된 화면에서 세부 페이지의 콘텐츠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이고 간결한 레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반면, 세부페이지의 레이블은

보통 내비게이션바에 위치해 있으며, 메인레이블과 동일하게 작성되거나 메인레이블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면 좀 더 체계적일 것이다. 또한 메인-서브페이지의 레이블이 서로 다르게 명명 되어있더라도 각각의 레이블은 그 의미가 동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표 1>에서처럼 메인-서브 레이블이 내포한 개념적 크기에 있어서, 또는 일관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표 1> 메인메뉴와 세부 웹페이지 레이블 비교

도서관	메인메뉴	세부 웹페이지
BSU	Find in our Building	Location
	Find Help	Help
PENN	Catalog Search	Franklin
	Video Search	VCat

보이시주립대학교(BSU) 도서관의 경우 메인메뉴의 레이블이 세부페이지의 레이블보다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었다. 메인메뉴 [Find in our Building]의 세부페이지는 [Location]으로 명명되어있는데, 만일 이와 반대로 [Location]이 메인메뉴의 레이블이었다면 정보의 구조와 내비게이션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이었을 것이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PENN) 도서관은 메인-세부페이지 관계에 있어서 레이블 간의 의미가 명확히 승계가 되지 않은 사례이다. 예를 들어 메인메뉴인 [Catalog Search]를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세부 웹페이지의 제목은 [Franklin]으로 명명되어 있다. 이는 Franklin도서관의 목록을 검색한다는 의미인데, 레이블이 직관적이지 못하고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Catalog Search]에 대한 의미가 제대로 승계되고 있지 않다. 이뿐만이 아니라, [Video Search]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례라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구미지역 8개 대학도서관의 모바일 웹사이트를 조사하여 각 사이트의 정보구조와 내비게이션 체계, 레이블링 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서관 모바일 웹사이트의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에 대해 제안하였는데,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도서관들의 모바일 웹사이트의 정보구조는 병렬구조였다. 모든 메뉴는 각각 독립된 한 개의 콘텐츠였으며, 메인화면에서 그리드형태로 제공되거나 리스트형태로 제공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정보의 흐름은 수평방향으로만 진행되며, 제공하고자 하는 메뉴가 많아질수록 사이트의 폭(width)은 넓어지게 된다. 따라서 화면의 제약이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제한이 있다. 이를 위해 콘텐츠의 선별과 정보구조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도서관의 모바일 웹사이트들은 대부분 서브도메인이나 서브디렉토리에 'm'이나 'mobile' 같이 모바일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해서 웹페이지의 URL을 구성하고 있었다. 모바일 디바이스로 일반 PC용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모바일 웹사이트로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리디렉션 기능은 일부 도서관에서만 사용하고 있었다. 모바일 웹사이트들은 병렬정보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PC용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글로벌 내비게이션이나 로컬 내비게이션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곳을 제외한 모든 도서관에서 모바일 웹사이트의 각 페이지에서 내비게이션바를 제공하고 있었다. 모든 내비게이션바에는 메인화면으로 돌아가는 홈버튼과 현재페이지의 위치를 알려주는 페이지 제목이 위치해 있었다. 메인화면에서 내비게이션의 향상을 위해서는 메뉴의 배치 순서가 중요하다. 서로 관련이 있거나

비슷한 목적의 메뉴가 이웃해서 함께 배치된다면, 이용자가 모바일 웹사이트를 브라우징하면서 원하는 정보나 추가적인 정보를 발견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셋째, 각 도서관의 모바일 페이지의 레이블들은 대부분 직관적으로 명명되었으며, 전문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일반적인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글자 수의 길이가 길거나,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레이블도 있었다. 레이블의 체계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메인메뉴와 메인메뉴를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세부 웹페이지의 제목을 비교해 보았다. 메인메뉴는 세부페이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위의 개념이므로, 메인메뉴에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레이블을 부여한다면 체계적인 레이블 체계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서울경제신문. 2010. "스마트폰 가입자 300만 명시대." 7월 29일.[cited 2010. 8. 2].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007/e201007291711174758.htm>>
- Morville P. and Rosenfeld L. 2006. "Information Architecture for the World Wide Web : Designing Large-scale Web Site." 3ed. Sebastopol, CA: O'Reilly.
- 이승민, 김혜경. 2004. 국내 대학 웹사이트의 정보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1(2):127-152.
- 장로사, 김성희. 2006. 어린이도서관 웹사이트 콘텐츠 비교·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4):1-19.
- Jasek, C. 2006 "How to design library web sites to maximize usability." Library connect pamphlet no. 5. San Diego: Elsevier.